

영동 산간지역 민가의 평면 변화에 관한 고찰

-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마을을 대상으로 -

Research on the Plan Exchange of the Vernacular Dwelling in Yong-Dong Mountain Region

이 용 준*
Lee, Yong-Jun

Abstract

This research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n of the vernacular form of dwelling in KoCheon-Ri village, situated in the Yong-Dong mountain region. As part of this study, an analysis of local diversity is carried out. The current existing village houses in Kocheon-Ri can b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floor structure, either as a wooden-floored or an Ondol-floored Kyup-jip(a double row house type). It was found that the wooden-floored Kyup-jip house has been transformed into Ondol-floored Kyup-jip due to a range of various factors. In order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vernacular dwelling type occurring in a particular area,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typical form that appears within the broader area. However, differences is also essential.

Keywords : kocheon-ri, vernacular dwelling, changing factors, ondol-floored kyup-jip, wooden-floored kyup-jip

주요어 : 고천리, 민가, 변화요인, 마루중심형 곽집, 온돌중심형 곽집

I. 서론

민가는 그 지역의 사회, 경제적 조건에 대응하려는 인간 노력의 결과이며, 어떤 지역의 성격에 맞도록 발생한 형식도 지역적인 변용(變容)을 일으키면서 타 지역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갖고 있다.¹⁾ 민가에서 보이는 이러한 특징은 일차적으로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 문화권이 인접할 때, 양자 사이에는 중간 지역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들 지역에는 두 문화의 요소가 공존하기도 하며, 두 문화의 중간형이 출현하기도 한다. 이에, 두 문화가 서로 교류하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독특한 결과를 보이게 된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영동(嶺東) 산간지역의 민가는 북쪽으로 함경도지역과 남쪽으로 경상북부지역의 중앙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두 지역 민가의 특성과 지역적 변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영동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천리 마을의 민가에 나타나는 평면의 특성과 변화하는 양상을 고찰한 것이며, 이를 통해서 민가의 지역적인 변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어느 한 지역 민가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지역의 대

표적인 형식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주변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미시적인 변화를 밝히는 것이 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II. 고천리 마을의 자연, 인문환경

1. 자연환경

고천리는 현재 행정구역상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에 편성되어 있다. 고천리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으로서 삼척시는 동쪽으로 전체가 바다에 접하고 있으며, 서남쪽으로는 태백시 그리고 서쪽은 정선군, 북쪽으로는 동해시에 인접하고 있다. 한편,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북부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과거부터 두 지역 사이에는 많은 교류가 있어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택리지에서 언급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 오십천의 발원지인 유령을 통과하면, 황지(黃池)의 물이 천천(穿川) 위에서 합수하여 남쪽으로 흘러 내려와서 예안(禮安)에 이르고, 동쪽으로 굽어졌다가 다시 서쪽으로 흐르면서 안동(安東) 남쪽을 둘러서 흐르게 된다. ...”²⁾라고 기록하고 있다. 결국, 삼척지역의 생활양식이 오랫동안 경상북도 북부지역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삼척지역은 주변이 높은 산지와 넓은 바다에 접해 있

*정희원(주저자, 교신저자) 국립문화재연구소 선임연구원, 공학박사

1) 홍경희(1988), 촌락지리학, 범문사, pp. 271-272.

2) 이중환(이익성 역)(1993), 택리지, 을유문화사, p. 60.



그림 1. 고천리 마을 배치도(필자작성)

표 1. 행정구역별 경지 면적과 논밭비율

행정구역 (ha)	경지면적 (ha)	논 (ha)	경지면적 중 논의 비율	밭 (ha)	경지면적 중 밭의 비율	목초지 (ha)
삼척시	442	60	13.6%	382	86.4%	14
도계읍	671	20	3.0%	651	97.0%	5
원덕읍	785	478	60.9%	308	39.1%	-
근덕면	965	532	55.1%	432	44.9%	24
하장면	1,015	77	7.6%	938	92.4%	145
미로면 (고천리 포함)	613	116	18.9%	497	81.1%	3
노곡면	360	47	13.1%	313	86.9%	15
가곡면	289	67	23.2%	222	76.8%	-
신기면	209	42	20.1%	167	79.9%	-
총계	5,348	1,438	26.9%	3,910	73.1%	207

자료: 유흥식(1995), 삼척의 역사와 문화유적, 관동대학교 박물관, p.72.

으므로 대부분의 경작지가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척지역의 총 면적 중 경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까지 6.39%에 불과하다. <표 1>은 행정구역별 경지 면적과 논밭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전체 경지면적 중 논 비율은 1990년까지 단지 26.9%에 달한다.

이처럼 논밭의 비율에서 밭이 차지하는 큰 비중은 고천리가 속한 미로면에 있어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경작지의 부족에 의한 화전(火田)의 결과로 해석된다.

강원 산간지역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화전민(火田民)이 거주하였던 곳으로 1965년 조사에 의하면 강원도 전농가의 12%인 약 20만에 달하였다. 그러나 1974년부터 1976년의 3개년에 걸친 화전 정리사업으로 경사도 20° 이상의 화전은 산림으로 회복하고, 20° 미만의 화

전은 농경지화 하면서 화전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 당시 삼척시에는 2,083가구의 화전민이 있었으나 이 중 254가구만이 이주 또는 이전하고 88%에 가까운 1,829가구가 현지에 그대로 정착하였다.³⁾ 이에, 고천리 역시 정착 초기부터 화전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라 할 수 있다.

2. 인문환경

고천리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와 최초로 정착한 인물에 대해서는 관련 문헌⁴⁾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조선 선조(宣祖)때 김철신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로부터 이주하였으며, 그 후 안검사, 진우일, 이벽, 김상옥, 김만중, 박화숙 등의 각 성씨들이 이주하게 되었다.

오늘날 행정구역에 따라 4개의 반으로 구성된 고천리는 광복 직후 한때 115가구까지 되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도 피난민이 들어와 주민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부터는 도시화 바람으로 젊은 층이 도회지로 빠져 나가게 되었고, 최근 몇 년동안은 계속해서 주민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민수의 유동에 따른 고천리 마을의 호구수와 주민수는 <표 2>와 같다.

고천리를 구성하고 있는 4개의 반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위치하고 있으며 형성과정은 주민들의 진술과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할 때, 4반→3반→2반→1반의 순서로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김명복·김일진(1992), 강원도 남부 산간지역의 곁집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11), p. 63.

4) 홍중범 외(1963), 眞珠誌, 卷之一, 회상사, p. 18.: “...宣祖時金喆信自橋谷里後安儉使陣友一李壁金祥玉金萬中朴和叔各氏來住...”

표 2. 고천리 마을의 연도별 호구수/주민수

연도	1759년	1916년	1962년	1982년	1993년	2008년
호구수	35호	98호	108호	98호	80호	64호
주민수	182명	411명	648명	525명	303명	150명

자료: 삼척시 미로면 사무소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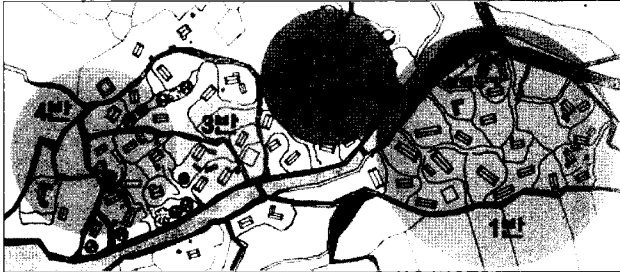


그림 2. 고천리 마을의 반별 구성 현황(필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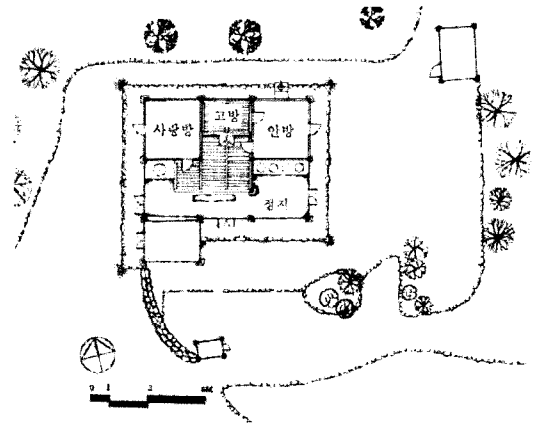


그림 3. 고천리 마루중심형 겹집 김재봉씨가옥(필자작성)

III. 고천리 민가의 평면 형식

1. 민가의 특성

민가의 평면 형식을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몸체에 구성된 각 실들의 배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각 실들의 배열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전후 2열로 구성되는 것과 1열로만 구성하는 경우이다. 통상적으로 전자를 겹집(또는 양통집), 후자를 홑집(또는 외통집)으로 지칭한다. 고천리 마을에 현존하는 64호의 민가는 기본적으로 모두 겹집의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중앙에 위치한 마루를 중심으로 각 실들을 배치하는 소위, 마루중심형 겹집이고, 둘째는 온돌을 중심으로 전자형(田字型)의 실배열을 보이는 소위, 온돌중심형 겹집이다.

마을전체 64호의 민가 중 최근에 새로이 신축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온돌중심형 겹집이며, 1동만이 마루중심형 겹집으로서 그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과의 면담 내용을 근거로 하면 20-30년전까지는 10여동이 존재하였으나 현재 일부는 내부공간을 현대식으로 수리하였으며, 대부분은 온돌중심형 겹집으로 개조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온돌중심형 겹집 중 상당수는 개조 전의 흔적을 살필 수 있었는데, 이 경우 본래의 기본적인 형태에서 각 실들의 구성 방법을 달리 함으로서 구조체 등의 큰 변화 없이 내부공간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고천리 마을에서 마루중심형 겹집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퇴화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온돌중심형 겹집으로 변화되어 왔던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마루중심형 겹집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 속에서 변화를 발생시켰던 요인을 분석하여 그로 인해 온돌중심형 겹집으로 변화된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민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그 중 온돌중심형 겹집 15동과 마루중심형 겹집 1동은 직접 실측, 조사하였다.

2. 마루중심형 겹집의 기본형식

1) 평면구성 방식

고천리 마을에 현존하는 마루중심형 겹집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면3칸, 측면2칸의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 형태를 구성 하고 있는 소위, 여칸집(6칸집)으로 불리는 형태이다. 내부공간은 안방, 사랑방, 도장방, 정지, 마루, 마구 등으로 구성되며, 마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들이 모두 몸체 내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외폐내개(外閉內開)적인 내부 구성방식이 형성된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산간지역이라는 지리적인 환경조건 속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⁵⁾을 근거로 살펴볼 수 있다.

“... 辛卯(1771)년 가을과 겨울에 호랑이의 환난이 항상 경내의 곳곳에 많아서 대낮에 몰린 사람이 200여 명이나 되었다. ...”

“... 壬寅(1782)년 6, 7, 8월에 포악한 호랑이가 마구 나다니어 산골짜기 농민 및 풀 베는 사람과 뚝나무하는 사람들이 상수리 열매를 내버리고 봉변을 당하여 들어온 것이 한 두 사람에 그치지 않았다. 7, 8명의 사람과 3, 4마리의 소와 말이 일시에 모두 다쳤으니, 이와 같은 흉변을 예로부터 듣지 못하였다. ...”

“... 癸卯(1783)년 3월에 포악한 호랑이가 대낮에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자못 많았고 ...”

상술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맹수들에 의한 피해는 당연히 주민들에게 있어 대책을 요하게 했으며, 민가의 건축에 있어서도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맹수들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외부공간의 이용을 최대한 줄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기능이 몸체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집중적인 구성방식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고천리 마을에서 외양간 또는 마구간이라 불리는 축사(畜舍)의

5)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1997), 원역 척주집, 삼척시, pp. 119-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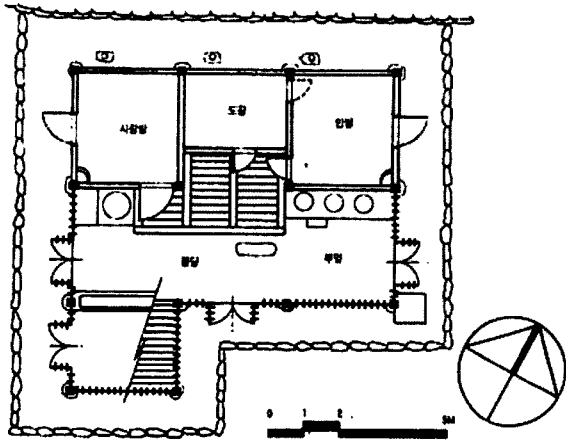


그림 4.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의 마루중심형 겹집(자료: 정재국 (1995), 삼척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삼척의 전통건축), 관동대학교 박물관, p.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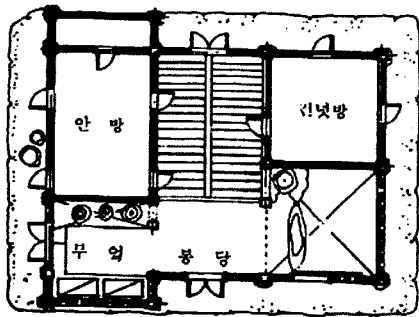


그림 5. 안동시 임하면의 마루중심형 겹집(자료: 김명복, 김일진 (1990), 경북지방의 겹집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31호, p.87.)

위치이다. 위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맹수로 인한 피해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소와 말 등의 가축에게까지 해를 입혔던 것을 알 수 있다. 화전(火田)을 주생업으로 하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가축들이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을 것이므로 사람들 못지않게 중요한 관리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축사의 위치가 몸체 내부에 설치되어 전체적으로 외폐내개의 평면형태를 이루면서 이와 함께 사람과 가축이 하나의 주거공간내에서 생활하게 되는 인축동거형(人畜同居形)의 공간구성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축동거형으로 인하여 실내 공기의 환기 및 통풍 문제가 제기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으로 구성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외벽에 면한 벽체는 판벽(板壁)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내부집중적 평면구성을 보이는 마루중심형 겹집은 고천리 마을 이외에 주변 인근의 산간지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그림 4, 5>, 결국 주변 환경의 영향 속에 적응하기 위한 지역적인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내부공간의 기능 분할

내부공간은 크게 생활공간과 의식공간, 저장공간으로 구분되며, 내부 집중적인 구성방식에서 나타나는 각 공간들의 기능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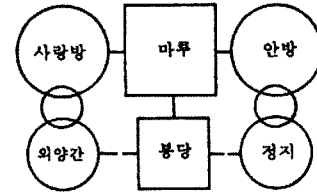


그림 6. 생활공간의 영역구분

(1) 생활공간

생활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주목할 것은 <그림 6>에서와 같이 내부공간이 크게 남녀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즉, 마루를 중심으로 남성의 공간인 사랑방 영역과 여성의 공간인 안방 영역으로 구분된다. 사랑방은 외부에 접하여 출입문이 설치된 반면, 안방은 건물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에 직접 개방되지 않게 하였다. 이러한 영역구분은 출입에 있어서도 남녀의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용마루와 수평이 되는 사랑방 쪽의 출입문은 남성을 위한 것이며, 반대편과 중앙의 출입문은 여성의 작업동선과 관계되는 여성을 위한 출입문이 된다. 이러한 남녀의 영역분리는 유교문화의 흔적으로서 내외사상이나 내외법 등에 의해 일반적으로 상류계층의 가옥에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마루중심형 겹집에서도 남녀의 영역분리를 통한 내외사상의 실천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유교적 예제가 산간지역 민가의 내부공간 구성에도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상이한 것은 일반적으로 상류계층의 가옥에서는 안채와 사랑채를 별도로 분리시키지만, 고천리 민가에서는 이와는 달리 한 동의 건물 속에서 마루를 중심으로 사랑방 영역과 안방 영역으로 영역분리가 이루어지게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2) 의식공간

남녀의 영역분리와 함께 마루중심형 겹집에서 고찰되는 유교적 예제로서의 의식공간을 볼 수 있다. 즉,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루의 뒷부분에 별도의 벽을 구성하여 의식공간을 만들어 이곳에 조상들의 위패를 모셔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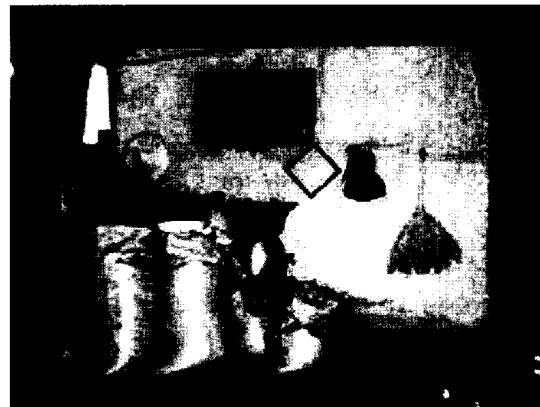


사진 1. 시우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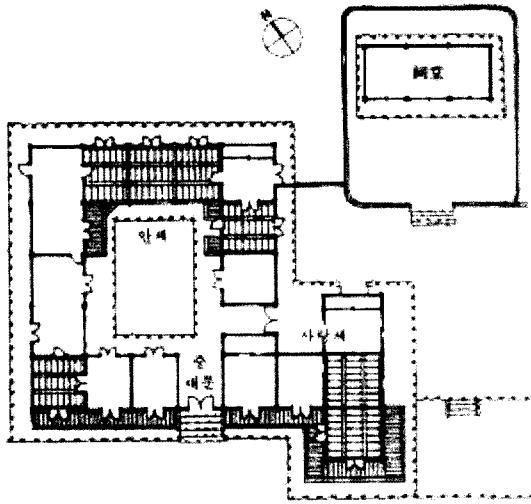


그림 7. 영천 정재영 가옥 평면도(자료: 김동욱(2007),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p.284.

고 의식을 거행하게 된다. 이러한 의식공간의 구성은 상술한 내외사상이나 내외법에 의한 남녀의 영역구분과 함께 고천리 민가에서 유교적 윤리관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으며, 이때 마루의 기능은 의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의식공간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교적 예제가 산간지역 민가의 내부공간 구성에도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만 상류계층의 가옥과 상이한 것은 상류계층에서는 가옥의 본체와는 별도로 별도의 사당(祠堂)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서는 한 동의 건물 속에서 마루 공간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3) 저장공간

내부공간을 구성하는 요소 중 마루는 상술한 의식공간 이외에 저장공간으로도 이용된다. 즉, 앞의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소위 고방(또는 도장방)이라 부르는 곳에는 중앙의 마루가 연장되어 있어 충분한 통풍과 환기로 생활양식이 부패하지 않고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된다. 고방은 외부에 면한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방에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도난으로부터 생활양식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앞서 생활공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방은 여성들만의 영역으로 가사노동과 직결되므로 생활양식을 저장하는 고방의 출입은 안방에서만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루중심형 겹집은 주변 환경에 의해 내부 집중적인 공간구성을 이루게 되었으며 그 속에서 생활공간, 의식공간, 저장공간의 모든 기능들을 몸체 내에서 수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마루중심형 겹집의 평면 형태는 영동 산간지역에 현존하는 여러 민가 형식 중 하나로써 유교적 예제와 산간지역의 지리적인 특성 등이 함께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3. 마루중심형 공간구성의 변화 원인

민가의 형식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쉽게 변하지 않으며, 변한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변하게 된다. 이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한 주생활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하나의 생물체로서 인식되기 때문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그 조건에 따라 크게 대내적인 변화와 대외적인 변화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대내적 변화의 측면으로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고천리 마을에 현존하는 마루중심형 겹집은 1동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온돌중심형 겹집으로 개조되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기존 온돌중심형의 공간구성은 시대의 변천에 따른 주변 환경 등의 다양한 영향 속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비실용적이거나 불만족스러운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외적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천리를 포함하는 영동지역은 조선시대에 강원도와 함경도의 경계를 이루는 중요한 지역으로서 오랫동안 두 지역 사이의 왕래가 빈번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교류가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문화권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 속에서 살펴볼 때, 각각의 상이한 구성요소들이 상호관계 속에서 혼합, 절충되어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내적 변화와 대외적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생활적 관점과 주변지역과의 지리적 관점에서 속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대내적 변화: 생활적 관점

(1) 가족구성의 증가에 따른 취침공간(방)의 부족

앞서 고천리의 인문환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정 기간 동안 고천리의 가옥 수와 주민수의 증가는 마을의 한정된 주거공간과 민가의 한정된 내부공간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한정된 내부공간에서 가족구성의 증가에 따른 취침공간인 방의 부족은 가장 큰 문제였다. 따라서 거주자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불합리한 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생활의 편의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방의 확장이 요구되었다. 결국 방의 확장은 평면형식의 변형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그 원인은 일차적으로 가족구성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가용용지의 부족에 따른 저장공간(창고) 부족

이 밖에 또 다른 이유는 고천리의 주변 환경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즉, 마을은 주변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상대적으로 주거지 면적과 경작지 면적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그림 8). 따라서 마을이 형성되면서 화전에 의존하여 주변의 산지를 경작지 면적으로 개간하였다. 이에 밭농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고천리의 주민들은 넓은 경작지 면적을 소유한 다른 마을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많

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주소득원으로 길쌈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고천리의 새로운 주소득원으로 그 쓰임이 지금까지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길쌈은 농한기인 겨울철에 주로 부녀자들에 의해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며, 길쌈을 위한 작업공간으로 주로 방을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방은 취침공간 이외에 길쌈의 작업공간과 길쌈의 원료인 삼베를 저장하는 저장공간으로서 기능을 겸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상술한 바와 같이 고천리가 위치한 산간지역의 주변 환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평지에 위치한 마을에서는 마을 전체가 생활공간이 되어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업활동 등은 주민 모두가 마을내의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반면, 산간지역에 위치한 고천리에서는 개별 민가가 근본적으로 작업활동을 포함한 모든 일상생활을 위한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민가 내에 작업공간과 저장공간 등을 위해 독립된 공간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은 상술한 가족 구성원의 증가에 따라 취침공간의 부족과 함께 기존의 내부공간에서 해결해야 할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결국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방의 확장은 다른 무엇보다도 절실하였으며 그로 인해 본래의 형태에서 변형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내부집중적 평면구성에 따른 실내 환경의 문제

마루중심형 겹집의 경우 외폐내개 및 인축동거형의 평면 형태를 구성함에 따라 모든 시설물들이 내부에 집중되어 배치되므로 내부공간의 일조 및 채광, 환기, 통풍 등 실내 환경 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을 제외한 모든 외벽들은 판벽을 이용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거주자들에게 이러한 문제점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의 불합리한 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공간의 분리가 절실히 요구되었을 것이다. 결국 내부 공간에서의 공간 분리는 기존 외폐내개 및 인축동거형 평면에서의 변형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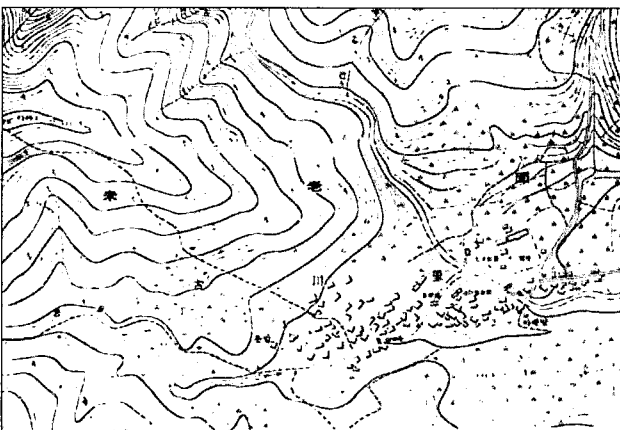


그림 8. 고천리 마을 주변 지형도(1:5,000)

(4)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주거형태의 요구
앞서 고천리 마을의 인문환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을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마을의 형성 초기와 달리 주거지 및 경작지를 위한 가용용지가 확보되었다. 이에 따라 주변의 산지가 상당수 경작지로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마을 규모의 팽창과 함께 주변 지역의 형질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 그것에 걸맞은 새로운 거주형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평면구성 방식에서 변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대외적 변화: 지리적 관점

삼척시는 지리적으로 백두대간의 지맥 속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해안지역, 서쪽으로는 산간지역과 접하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상 과거에는 동-서의 교류 보다는 남-북으로 주된 교류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서남쪽의 삼면이 모두 바다이므로 배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나 동해는 바람이 높고 물결이 급하여 경상도의 여러 고을과 강원도의 영동쪽과 함경도의 배는 서로 통하지만, 서남쪽의 배는 동해 물살에 익숙하지 못하여서 왕래가 드물다. ...”⁶⁾

“...乙卯(1555)년에 사창(社倉)을 없애고 부창(府倉)에 합하였다. 동계(東界)의 조세는 북도(北道)의 군량미로 주었기에 모든 고을에서 이를 옮겨갔는데 ...”⁷⁾

즉, 상술한 내용을 근거로 하면 조선시대 영동지역은 강원도와 함경도의 경계를 이루는 중요한 지역으로 두 지역 사이에 오랫동안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 속에서 삼척을 포함한 영동의 각 지역들은 함경도와 경계를 이루면서 다양한 교류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지리적인 조건은 일상생활 속에서 두 지역이 다양한 교류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또한 민가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즉, 민가는 그 지역의 사회적 조건에 대해 상응하려는 인간 노력의 결과이며, 지역적인 변용을 일으키면서 타 지역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가의 특성은 상술한 지리적인 환경 속에서 잘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바로 삼척을 포함하는 영동지역과 함경도 지역의 민가 형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지역에 따른 다소의 차이는 두 지역간의 교류관계를 통해 독특한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즉, 다양한 교류관계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적인 변용을 가져왔을 것이며, 이러한 변용은 주민들의 주생활과 그에 따른 민가의 형식에서도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인 요인에 의한 고천리

6) 이중환(이익성 역)(1993), 앞의 책, p. 128.

7)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1997), 앞의 책, p. 294.

여기서 북도(北道)는 강원도와 경계를 이루는 함경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가의 기본형식은 두 지역의 교류관계에 따른 하나의 지역적인 변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고천리 민가형식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파악된다.

3. 변화의 내용

한 지역의 민가형식을 고찰하면 다양한 형식의 민가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다양한 민가의 형식 중에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그 지역의 대표적인 민가로 인정된다.⁸⁾ 또한, 그 지역의 대표적인 민가가 형성되기까지는 몇 단계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거주자들은 민가의 형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하게 되며, 이것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그 시대의 상황에 부합되는 새로운 민가 형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에, 고천리 마을의 마루중심형 겹집이 어떠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온돌중심형 겹집으로 변화(또는 개조)되어 왔는지를 앞서 언급한 변화의 관점을 근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리적 관점에 의한 대외적 변화 내용

지리적 요인에 의한 변화내용은 함경도 지역 민가와와의 변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림 9>는 함경도지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민가 형식으로 내부공간은 몸채 중앙에 온돌로 된 정주간이 부엌과 칸막이 없이 하나의 공간을 이루고 있다. 즉, 함경도 지역의 겹집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몸채 중앙에 온돌로 구성된 정주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정주간은 부엌에 인접된 공간으로서 가족 전체가 이 공간에 모여 식사를 하거나, 또는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등 함경도 지역 민가의 내부공간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민가의 온돌구조는 난방과 취사시설의 역할을 동시에 겸하고 있어 난방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여름에도 취사를 할 경우 온돌방이 더워짐으로 따듯한 남쪽으로 올수록 아궁이와 분리된 공간, 소위 마루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정주간이 있는 함경도 지역의 민가 형식이 기후적인 조건과 생활양식에 따라 지역적인 변용을 일으킬 경우 정주간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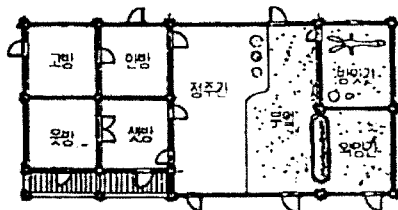


그림 9. 함경도 지역의 정주간형 민가(자료: 김일진(1996), 옛집에 담긴 생각, 청구, p.66)

8) 홍순인(1997), 전통마을의 형성과 민가형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p.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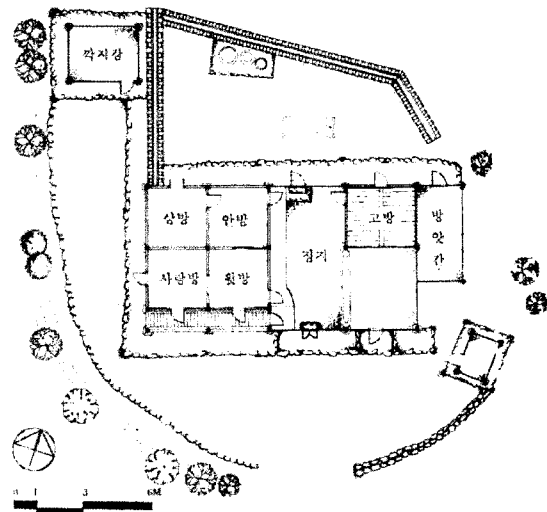


그림 10. 고천리 온돌중심형 겹집 유형(1)- 노상국씨 가옥(필자작성)

지거나 또는 내부공간에 마루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함경도 지역의 정주간형 민가와 고천리의 마루중심형 겹집이 기후적인 조건과 생활환경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역적인 변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고천리 마을에 현존하는 민가 중 <그림 10>은 온돌중심형 겹집으로 평면 구성이 함경도 지역 민가의 내부공간에서 단지 정주간이 생략된 형식과 거의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⁹⁾ 즉, 온돌구조가 추운 북쪽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때, 함경도 지역보다 온난한 기후 조건에 따라 내부공간에서 단지, 정주간만이 퇴화했으며 부뚜막 시설과 전자형으로 구성된 각 실들의 배열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주간이 생략된 형식은 함경남도 동남쪽인 함흥, 영흥, 고원, 원산, 안변 등지에서 나타나며, 전체적인 평면의 구성방식에 있어서는 상술한 고천리 민가의 온돌중심형 겹집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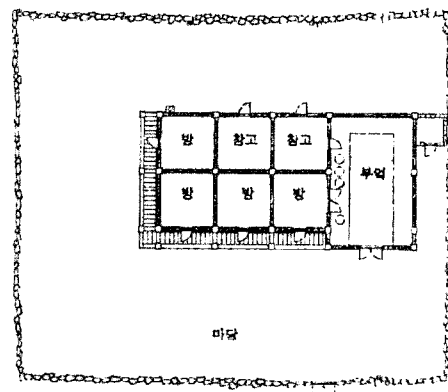


그림 11. 정주간이 생략된 함경도 지역의 민가(자료: 문정호(1996), 자료발굴을 통한 북한지역 전통주거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7.)

9) 김병복 · 김일진(1992), 앞의 논문, p.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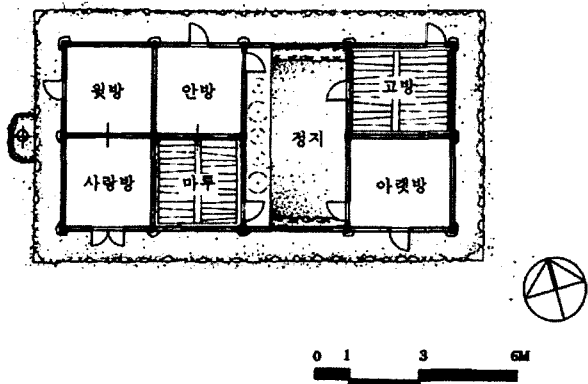


그림 12. 고천리 온돌중심형 겹집 유형(2)정옥려씨 가옥(필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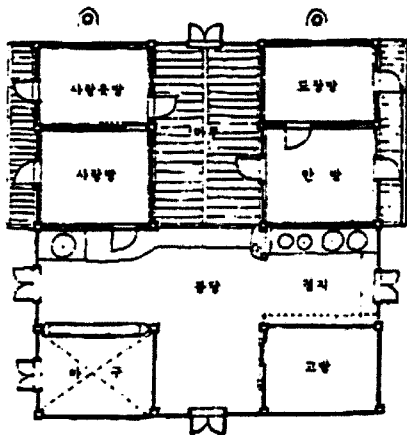


그림 13. 삼척시 도계읍의 12칸형 민가(자료: 서경태(1987), 삼척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3권, 제6호, p.20.)

둘째, <그림 12>와 같이 함경도 지역의 민가형식에서 정주간이 없어짐과 동시에 마루가 등장하는 것이다. 즉, 온돌중심형 겹집에 부분적으로 마루가 설치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마루는 고천리 민가의 마루중심형 겹집에서 이미 여러 기능으로 사용되는 등 일반화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에 따라 내부공간에서 마루를 쉽게 구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함경도 지역에서 마루가 있는 민가 형식이 조사되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따라서 함경도 지역 민가의 내부공간에서 정주간이 생략되고 각 실들이 전자형으로 구성된 형식에 부분적으로 마루가 구성되어 있는 것 역시 지역적인 변용에 따라 변형된 민가의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평면 구성을 갖는 민가는 고천리 이외에 주변 산간지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 생활적 관점에 의한 대내적 변화 내용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천리 마을에서 생활요인에 의한 변화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정된 내부공간에서의 필요 공간 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내부 집중적인 평면의 구성방식에서 실내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내부 공간의 규모를 확장하는 경우와 내부 공간의 변형을 통해서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는 두 가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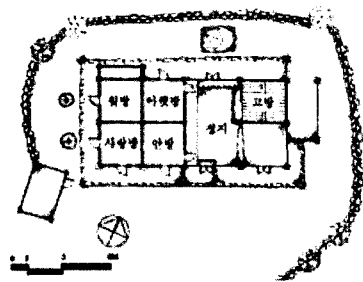


그림 14. 고천리 온돌중심형 겹집 최영철씨 가옥(필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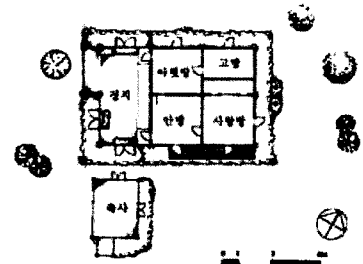


그림 15. 고천리 온돌중심형 겹집 최경식씨 가옥(필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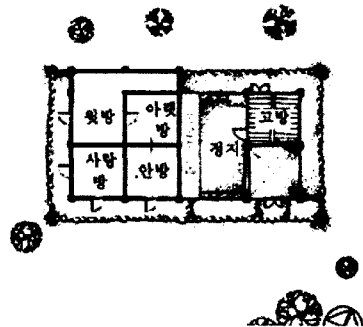


그림 16. 고천리 온돌중심형 겹집 김용각씨 가옥(필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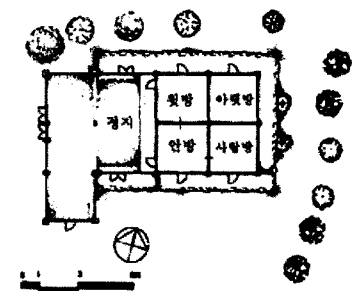


그림 17. 고천리 온돌중심형 겹집 정태길씨 가옥(필자작성)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전자의 경우 한정된 내부공간에서 공간 확장을 위해 정면3칸, 측면2칸으로 구성된 총6칸<그림 3> 규모에서 정면3칸, 측면3칸의 총9칸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천리 마을에 현존하는 민가 중 9칸으로 확장된 사례는 모두 내부공간의 개조를 통해 변형되어 직접적으로 확인 할 수는 없으며, 단지 주변 지역에 현존하는 사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공간의 규모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내부 공간의 확장은 9칸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면3칸, 측면4칸의 총 12칸 규모에 이르기까지 필요 공간 확보를 위해 확장이 가능한 것을 주변 지역의 현존하는 사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9칸, 12칸으로 확장된 경우 건물이 측면 방향으로 길어지게 되고 내부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일조와 통풍 등에 있어 적지 않은 단점으로 나타나게 되어 일상생활에 그다지 적절하지 않았던 확장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9칸, 12칸 규모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퇴화되거나 내부 공간을 개조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결국, 고천리 마을의 민가에서 생활적 관점에 따른 내부 공간의 확장은 앞서 언급한 함경도 지역의 정주간형 민가의 내부공간에서 단지 정주간이 생략된 형식을 구성함으로써 부족한 공간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독립된 4개의 방으로 구성된 전자형의 평면구성은 내부공간의 규모를 확장하지 않고 방의 수적 확장을 가져올 수 있었으며, 이러한 확장 방법은 결국 온돌중심형 곁집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고천리 마을의 대표적인 민가형식으로 마을 전체에 확장되었던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은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마을을 대상으로 영동 산간지역 민가의 평면 변화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고천리 마을에 현존하는 민가는 기본적으로 모두 곁집의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마루를 중심으로 각 실들을 배치하는 소위, 마루중심형 곁집과 온돌을 중심으로 전자형의 실 배열을 보이는 소위, 온돌중심형 곁집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현재 마루중심형 곁집은 1동만이 그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즉, 대부분은 내부공간을 현대식으로 수리하였으며, 온돌중심형 곁집으로 개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마루중심형 곁집의 기본형식과 그 속에서 변화를 발생시켰던 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고천리 마을에서 마루중심형 곁집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퇴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마루중심형 곁집은 대내적 변화로서의 생활적 관점과 대외적 변화로서의 지리적 관점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온돌중심형 곁집으로 변화되어 왔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변화의 요인과 구체적인 내용은 대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전자의 경우는 가족구성원의 증가에 따른 취침공간의 부족, 가용용지의 부족에 따른 저장공간의 부족, 평면구성 방식에 의한 실내 환경의 문제,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주거형태의 요구

등 일상 생활적 측면에서의 내용들이며 후자는 고천리를 포함하는 영동지역은 강원도와 함경도의 경계를 이루는 중요한 지역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고 이에 두 문화권의 구성요소들이 상호관계 속에서 혼합, 절충되어 나타나는 지리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들이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에 따른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리적 요인에 의한 변화 내용은 함경도 지역 민가와와 변용을 통해서 고찰할 수 있었는데, 고천리에 현존하는 온돌중심형 곁집은 방을 전자형으로 배열하여 평면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는 함경도 지역 민가의 내부공간에서 단지 정주간이 생략된 형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활 요인에 의한 변화 내용은 한정된 내부공간에서의 필요 공간 확보를 통해서 고찰할 수 있었다. 즉, 내부 집중적인 공간구성에서 공간이 확장될 경우 측면 방향으로 길어지게 되어 일조와 통풍 등에 있어 적지 않은 단점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그다지 적당한 확장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함경도 지역 민가의 내부공간에서 정주간이 생략된 형식을 구성함으로써 부족한 공간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상술한 변화 요인과 그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면 고천리 민가의 마루중심형 곁집은 점진적으로 퇴화되거나 온돌중심형 곁집으로 변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1. 홍종범 외(1963), 眞珠誌, 卷之一, 회상사, 18.
2. 서경태(1987), 삼척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0.
3. 홍경희(1988), 촌락지리학, 법문사, 271-272.
4. 김명복, 김일진(1992), 강원도 남부 산간지역의 곁집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11), 63-87.
5. 이중환(이익성 역)(1993), 택리지, 을유문화사, 60-128.
6. 정재국(1995), 삼척의 역사와 문화유적, 삼척의 전통건축, 관동대학교 박물관, 512.
7. 김일진(1996), 옛집에 담긴 생각, 청구, 66.
8. 문정호(1996), 자료발굴을 통한 북한지역 전통주거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7.
9.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1997), 완역 척추집, 삼척시, 119-294.
10. 홍순인(1997), 전통마을의 형성과 민가형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1.
11. 이용준(1998), 영동지역 민가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6-101.
12. 김동욱(2007),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84.

접수일(2008. 10. 7)
수정일(1차: 2008. 10. 10)
게재확정일(2008. 10. 15)